

# THE WALKERHILL

A photograph of a cable car cabin. The cabin has a teal interior with a curved ceiling and two teal chairs. Two black cables run vertically from the top of the cabin. The cabin is suspended against a bright blue sky with light clouds. Below the cabin, a dense forest of trees with yellow and orange foliage is visible. The overall scene is bright and clear.

OCTOBER 2008 No.3

AROOM  
WITH  
A VIEW

# MAGICAL CHALLENGE

물론 혼자여서 더 좋을 때도 있다. <집시문>을 함께 연출한 아담과 니나 바후디안 부부가 듣는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들은 <집시문>을 선보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혼자가 아닌 둘이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editor Kim Tae Hee**

**<집시문> 공연 잘 봤다. 레퍼토리가 매우 다양했는데, 특히 오토바이신이 정말 멋있었다. 호주 공연과 이번 한국 공연의 차이점이나 업그레이드된 점 등을 설명해달라.**

**아담** 고맙다. 당신이 쇼를 즐겼다니 나도 기쁘다. 우리는 이번 공연이 다양한 취향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매력적이길 바랐다. 서울 공연은 호주 무대에서 선보였던 공연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워킹 호텔 무대의 규모와 아시아 관객들의 취향을 많이 고려했다. 당연히 업그레이드되었다. 더 역동적이고 비주얼은 스펙터클한 면을 강조했다. 새로운 무대와 음악, 아름다운 조명, 프로젝션과 레이저 이펙트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한 의상들까지. 특히 공연자들 대부분이 바뀌었다.

**프로필을 보면 니나는 공동 연출자이자 캐스팅 담당자, 작가, 연출자, 의상 디자이너로 표기되어 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부분에 당신의 손길이 갔다는 얘기가.**

**니나** 고맙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 일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지난 수십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해 온 사람이다. 일을 할 때 물러서는 스타일도 아니다. 나는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노동관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내게 항상 말했다. 옳은 일, 보람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바쳐 매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니나는 완벽주의자 같다.**

**니나** 경험, 열정, 진실한 사랑은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삶의 열쇠다. 나는 배우와 연기 지도자로 이 일을 시작했다. 그게 33년 전 일이다. 동시에 패션과 무대의상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의 확워도 취득했다. 아담과 나는 1977년 처음 만나서 1981년에 결혼 했고 함께 사업도 했다. 나만의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를



설립해 텔레비전과 영화에 엔지니어를 공급하는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동시에 무대이상 만드는 일도 해왔다. 주로 아담이 연출하는 공연에 의상을 공급했는데,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큰 스케일의 공연에 의상을 공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디자인과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 아담과 공동 연출, 각본에 조금씩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공연 연출은 매우 진지하고 강한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다.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순간부터 책임감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나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

**아담** 어떤 도전이 있었나를 묻는 거겠지? 물론 있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몇몇 난제들이 숨어 있었다. 가장 큰 사건은 아마도 러시아와 그루지안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다. 우리는 그루지안 댄서들을 쇼에 영입했고, 이들은 서울로 와야 했다. 하지만 이들이 서울에 오기로 한 일주일 전에 전쟁이 터져버렸다. 서울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도심에선 폭탄이 평평 터졌고,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다. 댄서들이 서울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터키 국경을 넘어 서울에 오는 것이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루지아 대통령은 40세 이하의 모든 남성을 징병지 명단에 포함시켰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이번 쇼의 계약서와 홍보 자료들로 국경 사무소 직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국경을 건너 이스탄불까지 24시간 동안 운전하고, 비자를 얻어 뮌헨행 비행기를 탄 뒤 겨우 서울로 올 수 있었다. 쇼를 봐서 알겠지만, 그루지아 군무는 쇼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놀라운 에피소드다. 그런데 아담은 열여섯 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개인적으로 이 사실이 더 놀랍다.**

**아담** 나는 이 일을 정말 일찍 시작했다. 호주의 크로퍼드 프로덕션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영화와 텔레비전 일을 시작한 것이 그나이때다. 그 후 TV 프로듀서라는 직함을 얻기까지 그곳에서 무수히 많은 경험과 기술을 쌓았다. 그 회사에서 9년을 일했는데 음향 편집, 장소 캐스팅, 카메라, 연출, 구성작가까지 다양한 파트를 넘나들었다. 영화를 만들며 나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발전시키고 싶었다. 이때의 경험은 지금 쇼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텔레비전과 영화 프로듀서로 일하다가 쇼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아담** 열여섯 살 때 나는 프로덕션 일을 하는 동시에 5성급 호텔에서 뮤지션으로 일했다. 영화 산업에 몸담고 있었지만 호주 전역을 돌며 음악 공연을 했다. 이때의 활동으로 나는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텔레비전에 등장할 수 있었고 음반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니콜을 만나 팀을 이뤄 그녀가 나를 쇼의 세계로 인도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뭔가? 관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나?







보는 이의 숨을 멎게 할 만큼 박진감 넘치는 'Globe of Death' 공연. 5명의 라이더가 금속 글로브 안에서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역주를 한다.



**아담** 나는 관객 한명 한명이 공연을 보면서 스스로 멋진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꼈으면 한다. 니나와 내가 <집시문>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과 같이,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쇼가 선사하는, 결코 잊지 못할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다. 이걸 매우 중요하다.

**니나** <집시문>은 한 집시 여인의 환상적인 여행을 다루고 있다. 여인은 지구를 벗어나 온 우주를 여행하며 놀라운 판타지를 경험하고 지구로 돌아온다. 관객들은 그녀가 인도하는 이국적인 여행지를 따라가면 된다. 우리는 관객들에게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공간들을 함께 여행하면서 공연이 펼쳐지는 90분 남짓한 시간만이라도 골치 아픈 문제들을 잊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다.

**당신들에게 영감을 주는 최고의 오브제는 뭐가?**

**아담** 수많은 것이 나에게 영감을 준다. 나의 인생, 나의 가족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물론 나의 음악이나 나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다.

**니나** 남편 아담이다.(웃음)

**부부가 함께 일한다는 건 어떤 건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텐데.**

**니나** 정말 좋은 질문이다(웃음) 믿거나 말거나 남편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아담은 매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사람이다. 그는 단지 쇼를 구성해내는 연출가가 아니다. 아담은 음악과 음향 효과 같은 사운드에서부터 쇼의 모든 부분을 손수 지휘하고 통제한다. 우리가 팀을 이룸으로써 창의력과 예술성은 배가된다. 즐거이 함께 일한다는 점에서 우린 매우 드문 커플이라는 걸 안다. 행운이다. 우리는 일적으로 꽤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서로의 능력을 존중한다. 이런 모습 보고 자라선인지, 우리 아이들도 이 일에 뛰어 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 추억을 떠올린다면?

**아담** 니나를 만난 일이다(웃음)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쇼를 제작하는 일을 시작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수많은 일을 했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만든 쇼를 통해 수백만 관객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다.

**니나** <템포 루즈>라는 쇼 의상을 통해 헬프만 어워드에서 베스트 코스튬 디자인 상에 노미네이트되었던 일이다. 이 일로 나는 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셈이며 이는 내게 더 많은 길을 열어주었다.

**아담** <템포 루즈>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연출했던 <히든 팰리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2001년 호주에서 만든 이 쇼는 우리가 만든 첫 번째 대규모 쇼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고 매혹적인 경험이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쇼였고, 그 후 우리가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도전 의식으로 충만한 당신들이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쇼가 있다면?**

**아담** <집시문>을 보면 된다(웃음)진심이다. 크고 호화롭고 장엄한 공연. <집시문>은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바로 그런 공연이다.

**니나** 넉넉한 예산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쇼(웃음) 스펙터클한 의상을 가득 선보이는 그런 쇼를 만들고 싶다.

**지상의 모든 쇼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즐거움, 오락, 환상 같은 것들.**

**결국 좋은 쇼란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아담** 맞다. 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즐거움, 자극, 화려함,

오락 그리고 잊지 못할

궁극의 어떤 경험이다.

**니나** 관객들이 극장 문을

나설 때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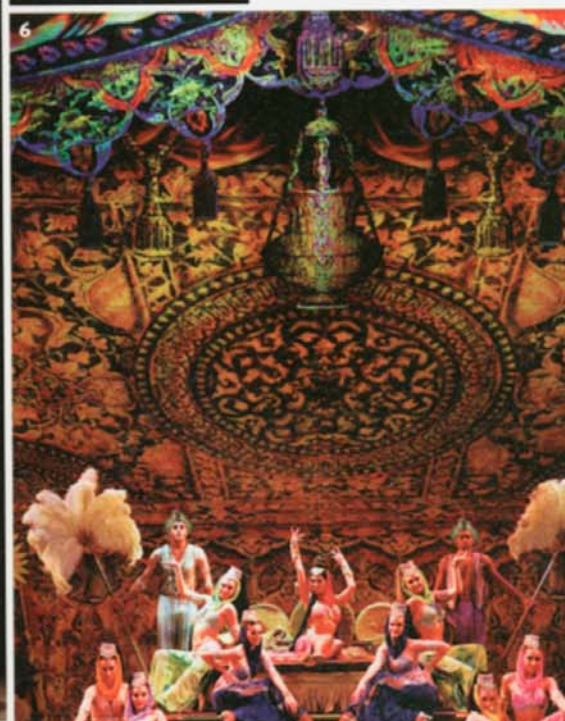
드러워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즐거운

에너지로 충만해진다면, 물론

클라이언트의 입가에도 미소가

지어진다면 최고겠지(웃음)



1 역동적인 그루지아 군무를 보여주는 카브카시오니 댄스팀.  
2 아르헨티나 <가우초, 카우보이> 릴라리오에 칼, 망토, 채찍, 볼 새총 같은 도구를 이용한 춤으로 인기 만점. 3 이번 공연을 공동 연출한 니나와 아담. 4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마임 일루시니스트 알베르 루보. 5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마술사 펠스톤 존스. 환상적인 마법과 유머러스함으로 <집시문> 공연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6 화려한 의상, 환상적인 댄스로 <집시문> 공연을 화려하게 수놓는 무희들.